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까지
나, 버지니아 울프

수사네 쿠렌달 지음 | 이상희 옮김

2023년 1월 16일 출간 | 판형 200×275 | 128쪽 | 19,800원 | 양장 | 분야: 인문 | ISBN 979-11-6774-083-0 03100

“나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써야만 해요.”

**작가들의 작가로 손꼽히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그래픽 전기**

**울프의 수많은 명작들, 내밀한 일기와 에세이,
친구와 연인에게 쓴 편지 속 문장들로 재구성된 삶의 장면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포착해낸 버지니아 울프는 이후 수많은 작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위대한 작가이다.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는 수상 소감 중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이 나의 삶을 바꾸었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울프가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은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들과 여전히 맞닿아 있다.

《나, 버지니아 울프》는 평생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날카로운 펜으로 남성 중심의 세계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버지니아 울프의 삶을 아름다운 그림과 압축적인 글로 보여주는 그래픽 전기다.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걸어온 길뿐만 아니라 부모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딸, 다른 작가의 책을 펴내며 재미를 느꼈던 출판인, 연인과 남편을 모두 사랑한 한 여성의 모습 역시 마주할 수 있다.

저자는 버지니아 울프가 지나온 삶의 장면들과 울프가 쓴 글 속의 문장들을 정교하게 교차시키는 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페이지마다 《댈러웨이 부인》, 《등대로》, 《자기만의 방》, 《세월》 등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작을 비롯한 여러 문학 작품과 에세이, 편지, 일기 등을 다채롭게 인용하고 있다. 또한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이자 깊은 우정을 나눈 비타 색빌웨스트, 영혼의 동반자인 레너드 울프, 동시대를 살았던 예술가인 리턴 스트레이치, 덩컨 그랜트,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캐서린 맨스필드 등과의 교류를 통해 울프의 사고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작가 ‘버지니아 울프’뿐 아니라 인간 버지니아 울프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의 삶과 작품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깨닫게 된다.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를 애정하는 독자는 물론 그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초보 독자에게도 더없이 값질 것이다.

**독일 일러스트레이터 수사네 쿠렌달의
감각적인 수채 일러스트로 탄생한 그래픽 전기**

그래픽 노블이라는 이 책의 형식은 울프가 가진 복잡성과 변화무쌍한 시대적 배경을 표현하기에 무척 탁월하다. 독일 일러스트레이터 수사네 쿠렌달의 감각적인 수채 일러스트는 버지니아 울프가 일생 동안 겪었던 기쁨과 슬픔, 불안과 걱정, 즐거움과 괴로움, 빛나는 천재성을 더없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 아름다운 수채화는 사람들이 울프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인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가 보낸 평범한 일상과 글쓰기에 전념한 순간들을 더 풍성하게 그려내고, 연필의 검고 굵은 선들은 울프가 빠져든 불안과 고뇌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때로는 말풍선 속 울프의 한마디보다 그의 표정에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만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형적인 프레임은 벗어나 이미지와 텍스트가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어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책은 버지니아 울프가 유년 시절 낙원처럼 여겼던 ‘톨랜드 하우스’에서의 일화, 이부 오빠의 성적 학대 때문에 생긴 거울에 대한 공포, 어머니의 이른 죽음과 아버지와의 애증 관계로 고

통받았던 10대 시절과 자신이 작가가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 20대를 거쳐 마침내 글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까지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블룸즈버리 그룹과의 교류, 레너드 울프와의 결혼과 자살 시도, 비타 색빌웨스트와의 만남, 그리고 죽음을 향해 우즈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연대순에 따라 보여준다.

나 자신으로 살고자 분투하는, 존재와 영혼의 확장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버지니아 울프가 건네는 계속 쓰는 삶에 대한 이야기

버지니아 울프는 평생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집필 활동 중에도 병 때문에 여러 차례 쉬어야 했지만, 결코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글쓰기는 그에게 '실존'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영혼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실제로 그는 일기에 소설을 쓰는 것이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적은 바 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울프의 짧은 일기에는 새로운 작품을 완성하고 난 뒤의 두려움이나 “오늘은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글을 썼다” 같은 담담한 고백이 적혀 있다. 저자는 버지니아 울프가 글을 쓰며 느낀 불안과 심연,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했던 가장 내밀한 순간들을 포착해냈다.

책 속에는 버지니아 울프가 무언가를 읽거나 글을 쓰는 장면들이 유달리 많이 그려져 있다. 울프의 인생이 실제로 '계속 쓰는' 삶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울프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문학 적 시도를 해왔다. 그가 위대한 작가로 불리는 이유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울프의 작품을 난해하다고 받아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시적인 내면의 독백이나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의 문법에서 벗어난 서술 방식은 울프의 작품을 읽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 책은 울프의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들을 모아 독자로 하여금 그의 다양한 작품 스타일을 맛보게 해준다. 이 책을 기점으로 울프의 다른 작품들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줄 책이다.

왜 지금 버지니아 울프를 주목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울프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책 속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몰두하는 생각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문제이다.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 글을 쓰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여성 억압의 현실을 역설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사회가 여성의 기회를 제한하고 여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는 수상 소감 중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이 나의 삶을 바꾸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여성 작가가 버지니아 울프에게 빚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걸어 올린 문장들이 개인적 경험의 기록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글쓰기로 확장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해방과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젠더 정체성이라는 주제의 선구자였던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돌아보며 앞 시대 여성들이 걸어온 길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게 될 것이다.

저/역자 소개

수사네 쿠렌달 Susanne Kuhlendahl

일러스트레이터. 복잡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어 사람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력을 느껴 그래픽 노블을 작업하기 시작했다.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산문 〈빵〉, 알레산드로 바리코의 《노베첸토》,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 등 예술성 높은 작품을 그래픽 노블로 만들었다. 지금은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작 《올랜도》를 준비 중이다.

웁킨이 이상희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본대학 아시아학부에서 번역학을 전공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웁킨 책으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데미안》 등 다수가 있다.

추천의 말

나는 이 책이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아우른 ‘인연의 지도’처럼 보였다. 여자라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그에게 책과 사람이 학교였고, 그는 “대화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다”라는 깨달음을 일찍이 터득한다. 대화로 영감을 얻고 나면 글쓰기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말로 크다. 당신이 존재와 영혼의 확장을 도와주는 좋은 대화 상대를 찾는다면 어서 이 책을 열고 살아 움직이는 버지니아 울프를 만나라고 귀뜸하고 싶다. **은유(작가)**